익산시 코로나 확산 차단 사활

확진자 동선·접촉자 파악 '발 빠른 초동 대응' 성과

총 591명 전원 음성… 추가 확진차단 비상태세 유지

익산시가 지역 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확인되면서 활동 영역이 넓은 확진자의 신속한 동선 파악과 접촉자 진단에 전 직원을 동원하는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는 발 빠른 초동 대응으로 추가 확진 차단의 성과를 거뒀지만 긴장의 고삐를 풀지 않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비상태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익산시보건소는 지난 26일 4번째 확진자 발생 즉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했다.

전북도 역학조사팀과 공조해 CCTV 영상, GPS자료 등의 관련 자료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시민과 공유했으며 이동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동시에 방문 장소 8곳에 대한 신속한 소독작업을 마쳤다.

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이 광범위함에 따라 팔봉 종합운동장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즉각 운영에 돌입했다. 전문의 2명과 보건소 인력 등 모두 20여명이 투입됐으며 이들은 28일 24시까지 상주하며 방문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했다.

익산시보건소는 지난 26일 4번째 확진자 발생 즉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했다.

그 결과 시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무려 지역 접촉자 95명을 포함한 59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밝혀짐에 따라 익산시는 고강도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섰다.

우선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콜라텍 5곳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험시설로 판단돼 28일 자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방문판매홍보관 4곳은 29일부터 일주일 간 휴업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확진자가 방문한 장례식장은 일주일 동안 휴업 명령을 내려 폐쇄됐으며 지역 노인요양시설은 정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방역 강화를 위해 면회를 금지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의무화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택시의 경우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미착용한 손님 응대를 위해 전체 1,400여대 택시에 손님용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7,100장을 지원했다.

지난 26일 4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사흘 동안 종교시설과 예식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방역 및 코로나19 검사 등에 전 직원이 동원됐다.

이 가운데 직원 800여명은 종교·체육시설, 결혼식장, 음식점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결혼식장 점검에 나선 직원들은 QR코드를 통한 출입자 확인과 열체크 등을 실시했으며 종교시설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회하며 방역수칙 여부를 점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은 2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 등 주요 국장급 심의관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설득과 지원요청 활동을 벌였다.

군산시, 예산확보 '고군분투'

지휘부, 기재부 방문 국장급 면담… 중점 사업 지원 건의

강임준 군산시장은 2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 등 주요 국장급 심의관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설득과 지원요청 활동을 벌였다. 이번 기획재정부 방문은 내년도 국가예산 기재부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쟁점사업 반영과 지역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 당위성 설명을 위해서 이뤄졌다.

이날 강 시장은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과 면담을 시작으로 국토교통예산과,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농림해양예산과 등 담당부서를 방문해 예산확보의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건의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조선해양설치 운송 인프라 구축(250억)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사업(441억)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243억)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지원(80억)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150억) 등이다. 특히,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은 해상풍력 등 대형구조물의 해상설치와 운송지원을 위한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최근 해상풍력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중소형 선박 관련 국내외 발주가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성장계획 신규사업으로 선정되고 산업부 정승일 차관과 강시장의 면담도 이뤄져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기재부 차원의 예산 반영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이와 연계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의 조립과 해상운송을 위한 지내력을 갖춘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국내외 발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군산 일원에 해상풍력 수주 계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야적장 적기 조성을 통해 군산 조선업 협력업체의 업종 전환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기재부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우리시 중점 사업이 반드시 확보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득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특수, 드림스타트 아동에 여름나기물품 전달

폭염에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 여름나기 후원물품을 전달한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특수(대표 김영훈)가 29일 전달식을 통해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여름나기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후원물품은 선풍기, 여름이불세트 등 100만원 상당으로 군산시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 중 폭염 위기에 노출위험이 있는 가정,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어 생활하는 가정 등 13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훈 대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산시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도움을 받은 만큼 군산시 어려운 가정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후원을 시작으로 군산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산특수는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은 "군산시드림스타트는 매년 여름철 혹서기 폭염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여름나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군산특수처럼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코로나19 가짜뉴스 주의보

최근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과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활발해지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도내뿐만 아니라 꾸준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북 주위 인근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선과 관련된 내용이 SNS에서 활발히 공유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개인 SNS에 '00지역 확진자 발생했다는데 사실인가요?', '확진자가 00에 다녀갔다던데 맞나요?' 같은 글이나 실명이 올라간 확진자 내용을 올리는 등 많은 관심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등 다양한 일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짜뉴스나 거짓뉴스에 혼란스러워 하기 보다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Eco House 5호점' 현판식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이 다양한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앞장서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은 한화에너지 군산공장(공장장 박종구)과 29일 푸른초장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 봉사단은 한화에너지의 비전인 안전한 에너지, 친환경 녹색성장을 실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기획한 'Eco House 5호점' 현판식을 실시했다.

지역지역아동센터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4.5kw지원을 통해 월7만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이들의 복지향상에도 큰 효과가 기대 된다.

박종구 공장장은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써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청렴 소통교육

군산시가 건강한 소통 문화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소통교육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7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최근 5년 이내 입사한 신규 공무원(청경, 공무직 포함) 705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청렴 소통교육'을 실시한다.

2020년 1월 현재 군산시 공무원으로 최근 5년 이내 입사한 인원은 705명이며 군산시 공무원 현원의 약 50%에 달한다. 짧은 기간 급격한 세대교체로 중간관리자(6급)와 직원 간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할 10년 이상 근무경력자 부족으로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통 및 갈등관리 전문 강사가 권역별 해당 장소에 찾아가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통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조직문화 조성과 새내기 직원들의 목소리 청취를 통한 의견 반영으로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실내체육시설 내달 4일까지 운영중단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간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운영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방역수칙 미이행 시 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주말 동안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하며 이 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해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방역수칙 안내문을 실내체육시설 267개소에 부착했다.

특히 헬스장(체력단련장), 탁구장, GX류 시설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전파될 우려가 있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수준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시설은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탁구장, 당구장 등 지역 소재 267개 민간 실내체육시설이며 50여명의 직원들이 투입되어 매일 점검을 실시한다. /익산=장양원 기자